

은혜의 성찬

The Eucharist of Grace

사무엘하 9:1-13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2월 3일 설교 (성찬식)

¹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²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³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이다.” ⁴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⁵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⁶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⁷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발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⁸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⁹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¹⁰너와 네 아들과 네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발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을 공케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 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¹¹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¹²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¹³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다윗과 므비보셋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원수처럼 괴롭히던 사울도 죽었고 또 이웃 나라와 치르던 전쟁도 끝났습니다. 나라가 안정되면서 지난날을 잠시 돌아보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너를 왕으로 세워주마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함께 사람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신 일꾼들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원수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걸 알자마자 다윗의 강력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공격에서 지켜주었고 다윗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격려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생 그 도움을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죽고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요나단과 후손을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사람이 있어야 지켜줄 것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모른다 싶어 다윗은 사울 집안의 살림을 맡아 하던 종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다고 합니다. 요나단의 친아들이면 사울의 친손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궁금해 할까 봐 이유부터 설명합니다. 다리를 접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굳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또 어쩌면 다윗의 관심을 끌어 보려고 그것부터 말했는지 모릅니다. 천한 장애인이니 그냥 무시하시지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각 그 사람을 부르라 했습니다. 다리를 절고 안 절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꼭 하나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점입니다. 요나단하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했습니다.

므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으로 불려와 엎드렸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넘기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면 정말 좋겠지만 죽일 생각이 아니고서야 원수 집안 사람을 왜 불렀겠습니까? 왕이 “네가 므비보셋이냐?” 묻자 대답했습니다. “예, 임금님의 종입니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

다.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첫마디가 뜻밖입니다. “겁낼 것 없다.” 다윗도 므비보셋이 겁을 내고 있는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겁내지 마라 한 다음 부른 이유를 바로 알려줍니다. “네 아버지에게 진 신세를 갚으려고 불렀다. 네 할아버지 재산을 다 너한테 주마. 그리고 너는 왕궁으로 들어와 나하고 한 상에서 밥을 먹자.”

므비보셋이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종이 뭐라고,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챙겨 주십니까?” 므비보셋은 이게 꿈이나 생시나 싶었겠지요.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이 있으니 십중팔구는 죽이려고 부르는 걸 겁니다. 죽여도 전혀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살려주마, 그 정도가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높여줍니다. 재산도 다 주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대접해 주겠다 합니다.

므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라 했습니다. 요즘은 개가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습니다만 그 시대의 개는 그저 하찮은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개라면 짓지도 물지도 못하고 시체 처리만 골치 아픈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므비보셋은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자기를 챙겨주는 다윗 왕이 더욱 고마웠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

다윗 앞에 선 므비보셋은 은혜의 상징입니다. 은혜로 푹푹 멍친, 은혜 말고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이 므비보셋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던 할아버지와 왕자였던 아버지를 한 날에 잃었습니다. 다섯 살 때의 일입니다.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다리마저 다쳤습니다. 그런 뒤로는 숨어 살았습니다. 왕가의 재산은 종이었던 시바가 몇 해째 제 것인 양 관리하고 있습니다. 숨어 사는 처지에 달란 말도 못 하지요.

그런데 왕이 나를 찾아내더니 높여줍니다. 왕가의 재산을 다 나한테 줍니다. 집안 머슴이었던 시바에게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나를 먹여살리라 합니다. 시바는 주인의 재산으로 잘 먹고 살았는지 아들이 열다섯이고 종이 스물이나 되었는데 이제 이 많은 인력이 므비보셋 한 사람을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왕궁에 있으라 합니다. 왕자처럼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요나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내 뜻이 아니지요. 유모 등에서 떨어져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내 탓이 아니지요. 장애인을 경멸하던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이 되었으니 불행하지요? 그런데 그 장애 덕에 사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연해 준 덕에 살았습니다. 두 다리가 성했다면 반란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누가 밀고를 해서라도 결국 죽었을 겁니다.

므비보셋 제가 한 거라고는 말뿐입니다. 저는 임금님의 종입니다. 죽은 개 같은 저를 왜 이리 챙겨주시는지요? 이게 답니다. 감사지요? 찬양입니다.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요,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오긴 왔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안 오는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처음 사울 집 사람을 찾아보라 했을 때 말했습니다.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는 뜻도 되고 그 정도로 크고 좋은 은총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윗은 어쩌면 후자의 뜻으로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 전자의 뜻이 되었습니다. 내가 베푸는 것 같아도 나는 그저 도구일 뿐 은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의리만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므비보셋이 한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저한테 해 주신 것과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므비보셋이 자기를 뭐라 불렀습니까? “죽은 개”라 했지요? 죽은 개, 이거 역사가 있는 표현입니다.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에게 나를 그만 좀 쫓아다니시라 호소하면서 자신을 죽은 개라 불렀습니다 (삼상 24:14). 이제 입장이 뒤집어져 사울의 손자가 다윗에게 자신을 죽은 개라 부르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지난날이 떠올랐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흉내 낸 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것도 아니던 나를 택하셔서 왕이 되게 해 주마 하시더니 끝내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의 위협 때문에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울은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온 백성의 마음이 또 나에게 쏠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은혜를 므비보셋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 원수 집안의 아들, 사람들이 경멸하던 장애인을 불러 빼앗

긴 재산 다 회복시켜주고 왕궁에 함께 사는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은혜의 식탁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상징입니다. 특히 다윗과 므비보셋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하고 참 비슷합니다. 사울 집안 사람이니 원수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습니다 (롬 5:10). 그런데 살펴보니 내 둘도 없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한 편이었습니다. 사울의 손자나, 요나단의 아들이나? 택하느냐 하는 건 다윗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랑을 택했습니다. 왜요?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이 죽기 전에 내가 네 집안을 돌봐주마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제 지킨 겁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우리를 찾아내시는 순간 지옥으로 처넣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복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그 생명을 맛보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기도로 이어갑니다. 그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의식 성찬을 통해 또 우리 영생을 이어갑니다. 천국 생명을 미리 맛봅니다.

다윗은 므비보셋에게 내 밥상에서 같이 먹자 했습니다.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찬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먹자 하십니다. 하나가 되자 하십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었으니 같이 먹고 같이 먹어 또 하나가 됩니다.

성찬은 오직 은혜의 자리입니다. 므비보셋처럼 되는 자리입니다. 죽은 개 같은 우리,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주님이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면서 밥도 같이 먹자 하십니다. 원수였던 우리 아닙니까? 므비보셋은 두 다리만 절었지만 우리는 온 몸, 온 마음, 온 영혼이 병자 아닙니까? 우리 몸,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불러 주셨습니다. 아니,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만이 참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주님의 만찬입니다.

우리도 다윗

므비보셋이 다윗의 밥상에서 함께 먹게 된 것은 므비보셋 자신이 입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을 확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는 바람에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 대신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를 주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밥상에 함께 앉은 므비보셋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빵 한 조각, 약간의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 있기에 앞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미리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맛보며 책임도 느낍니다. 은혜는 언제나 거저 주시는 거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 같은 은혜를 므비보셋에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내가 은혜를 받긴 받았나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싶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도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이들을 므비보셋처럼 대하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웃에게 베풀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먹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올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